

‘디어마이광주’와 문화예술 즐겨요

〈광주문화예술 플랫폼〉

광주문화재단, 26일~12월 4일 예술주간 ‘디어마이워크’ 기획전시·버스킹 공연·원데이 클래스 등 프로그램 다채

늦겨울과 초겨울이 맞물리는 시간, 전시를 비롯해 버스킹과 클래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시민들을 찾아온다.

광주문화재단은 광주 갤러리연합과 협력해 광주문화예술플랫폼 ‘디어마이광주’와 함께하는 예술주간 ‘디어마이워크’를 진행한다. 26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디어마이광주에 등록된 6개 스토어와 76명의 예술인이 참여한다.

디어마이광주는 누구나 콘텐츠를 쉽게 업로드하고 예술가와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정보를 공유하고 예술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올해 2월에 오픈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도 출시돼 있으며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디어마이광주를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6개 갤러리의 기획전시와 특별공연 2회, 원데이 클래스 7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돼 있다.

먼저 맥시아트유니온은 창작스튜디오인 가드닝센터에서 ‘아티스트 레지던시 생산적 예술활동’을 개최한다. 입주 작가인 김춘수, 이철규,

Gold1작가의 2022년 창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크리스마스리스 만들기, 픽셀아트on에코백 등 총 4회의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한다.

민아트갤러리에서는 ‘일상전시와 함께하는 영 아티스트 아트마켓’을 진행한다. 김다인 작가 등 총 23명의 영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12월 3일 오후 1시에는 특별 공연이 진행된다. 디어마이광주에 등록된 예술인 원보들의 인디 공연과 아르캉시엘의 클래식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크갤러리에서는 기영숙 작가 등 지역 작가들 중심으로 ‘Ark’s artist’展이 펼쳐진다. 이 기간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은혜 작가가 그려주는 내 얼굴’ 프로그램이 2회 운영된다.

예술공간집에서는 개관 5주년을 맞아 5년 간의 활동 아카이브전 ‘예술공간 집, 2017_2022’展을 연다. 2017년 개관기념전부터 2022년 주요 전시 자료, 전시도록 뿐만 아니라 1호 소장품인 조현택의 ‘나주시 서내동 113’ 등 소장품 전시도 진행된다.

이색적인 전시도 마련돼 있다. 플랫폼과사바바는 탐자 2대에 정승원 작가의 작품을 랩핑해 광주



원보들

를 순회하며 전시하는 ‘Moon Project Moving Art Platform’展을 진행한다. 또한 ‘디어마이광주’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전시를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며 성혜림 작가 등이 참여한다.

호랑가시나무아트플러곤은 호랑가시나무언덕 게스트하우스에서 방문객과 숙박객을 대상으로 소규모 페어인 ‘게스트하우스 아트페스타’展을 진행한다. 김승택 등 7명의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게스트하우스 숙박객에게는 20% 숙박료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펼쳐진다. 26일 오후 1시에는 조선판스타 우승자인 김산옥과 풍류대장 TOP 10, 포르투나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디어마이워크에 전시된 모든 작품들은 ‘디어마이광주’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시를 관람하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작품 옆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으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디어마이워크 기간 동안 6개 공간을 방문해 전시, 공연을 관람하거나 클래스 등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디어마이광주’에 업로드하면 기념품을 증정한다. 또한 디어마이광주 플랫폼에서 마음에 드는 갤러리 선택하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치킨세트를 증정한다.

문의 062-670-742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홍영인 작 ‘5100:오각형’

광주정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난다

광주비엔날레재단 ‘5·18운동 특별전’ 12월 2일~2023년 3월5일 서울·윌른·광주·베니스 이은 마지막 전시...양국 작가 8명 참여

5월 항쟁 40주이었던 지난 2020년 시작된 광주비엔날레재단의 ‘5·18민주화운동 특별전’은 3년간 타이페이, 서울, 윌른, 광주, 베니스에서 관람객들을 만났다. ‘광주정신’에 기반한 민주·인권·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연대하는 기획이었다. 특별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전시 ‘가까운 미래의 신화’ (Myths of the Near Future)가 12월 2일부터 2023년 3월 5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대내외적인 위협에 맞서 싸워온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1970, 80년대 군사 쿠데타로 민주정부가 실각되고 계엄령이 발동됐으며 국가 주도의 테러 행위가 자행됐다. 이번 전시는 한국-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을 맞아 열려 더욱 의미가 있다. 전시가 열리는 파크 드 라 메모리아는 국가 주도의 테러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원으로 증언과 성찰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시 주제는 영국 작가 J.G. 발라드의 단편소설 ‘근미래 신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현대미술관 선임 큐레이터 하비에르 발라와 미술사학자이자 전시기획자 소피아 듀란이 기획했다.

전시에는 양국에서 각각 4명씩 모두 8명의 작가

가 참여했다.

영화 감독이자 작가인 임흥순은 아르헨티나와 광주를 잇는 워크숍을 진행해 얻은 결과물을 통해 과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영상 설치 작업으로 풀어낸 ‘좋은 빛 좋은 공기’를 선보이며 자수 및 섬유 작업 시리즈로 작업한 루크레시아 리온티의 설치 작품 ‘피부 학교’는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집단과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해왔는지 묻는다.

에두아르도 몰리나리의 ‘철 산’은 국가 테러와 현대 사회 속 식민지적 뿌리를 파헤치는 작품이며 아르리안 비아트 로하스의 비주얼 만화 작업 ‘상상의 끝’을 전시한다.

최윤과 이민휘의 여섯 개 노래와 뮤직비디오로 이루어진 비디오 작품 ‘오염된 해’는 극단적 이념으로부터 비롯된 폭력을 구체화해 왜곡된 역사적 서사를 나타내며 홍영인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발견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안무 동작을 재현하고 실현하는 작업인 ‘5100:오각형’을 개막일에 선보인다.

그밖에 파트타임 스위트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규탄하던 사회적 저항의 도구가 어떻게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통제를 돕는 도구로 변했는지 ‘사람들, 다음 사람들’을 통해 보여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르캉시엘 단원들

무등산 풍경의 이끌림 ‘녹색갈증’

김수진 개인전, 25일~12월 25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서양화가 김수진 작가 개인전이 25일부터 오는 12월 25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문예회관이 지역작가들을 위해 진행한 공모전에 선정돼 마련됐다.

‘녹색갈증’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 작가는 무등산을 모티브로 제작한 신작 2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작들은 신선한 시각과 자유로운 표현의 형식으로 작가가 마주한 실제 풍경이자 자연에 대한 작가의 인상 기록이다.

‘녹색갈증’은 생명이 끌리는 이유에서 시작된 시리즈다. 작가는 생명의 탄생과 죽음, 순환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이끌림을 작품에 표현하려 했다고 말한다.

작가는 자연의 생동감을 표현하는 강렬한 색채

와 자유롭게 물결치는 선의 흐름으로 인간 세계의 원초적 모습을 보여주며 자연의 풍광을 단순하고 대담하게 압축해 현대회화의 조형적 간결미를 선사한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가 생명이 생명이 끌리는 이유에 대한 질문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며 “그 갈증을 해소하는 본인만의 단서를 찾아 평온한 삶을 이루는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개인전 4회 및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지원센터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The memory of Mt Mudeung’

세종목관챔버앙상블, 해설이 있는 음악회

26일 서구문화센터 공연장

목관악기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세종목관챔버앙상블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26일 오후 4시 광주 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연에는 바순 박선정, 피아노 김용배, 호른 이석준, 플루트 안영주, 클라리넷 김동진, 오보에 이윤정이 참여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G. 야곱의 ‘피아노와 목관 5중주를 위한 6중주곡 Op. 3’, D. 야기의 ‘Five Easy Dances’며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목관 5중주 버전으로 편곡한 작품도 들려준다.



플루트 안영주

호른 이석준

콘서트 가이드의 해설로 오페라 ‘카르멘’과 함께 플루타, 탱고, 볼레로, 왈츠, 롬바 등 5가지 춤곡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다. 전석 무료. 문의 062-654-4317.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